

# 예배역사적 관점에서 본 성결교회 예배의 기원과 방향\*

조기연 (서울신학대학교, 예배학)

## 한글초록

1990년대에 미국에서 생성된 소위 ‘현대예배는’ 교파를 초월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예배에 대한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구도자 예배’와 ‘경배와 찬양’ 등으로 대별되는 이 예배형식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예배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십자가, 강대상, 성찬대, 예복 같은 것들을 대부분 제거하고, 오르간이나 피아노 등 전통적인 악기보다는 키보드와 드럼 등 전자악기를 사용하며, 강렬한 사운드와 현란한 동영상(動影像)과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다가 곧바로 설교로 나아가는 단순한 형식의 예배이다. 이 찬양 위주의 예배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기에 열광하게 만들었다.

일선 목회자들은 전통예배와 현대예배의 사이에서 어정쩡한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쪽에는 오르간과 피아노를, 다른 한쪽에는

---

\* 이 논문은 2015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키보드와 드럼을 함께 배치하거나, 또는 가운 입은 성가대와 평상복을 입은 찬양팀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전통예배와 현대예배 사이의 갈등은 저명한 예배학자 토마스 롱(Thomas Long)이 ‘예배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전통예배나 현대예배나 논쟁이 단순히 취사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서가 말하는 예배에 대한 개념과 그 안에 깃들인 신학 그리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비로소 각 교단은 자신들 특색과 전통을 예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예수의 명령과 초대교회의 예배, 그리고 예배역사에 깃들인 예배의 본뜻과 신학을 파악하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예배가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려고 한다.

## 들어가는 말

최근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소위 ‘현대예배’의 등장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지금 소위 ‘예배의 전쟁’(Worship War)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sup>1)</sup> 미국의 월로우크릭 교회에서 시작된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가 ‘경배와 찬양’(Praise and Worship) 형식의 예배로 변형되어 한국교회에 유행처럼 번졌으며, 이 예배의 지지자들은 이 예배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화에 적합한 예배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교회 내에서 비교적 연령이 높은 회중들은 이 예배에 대하여 불편해

1) Thomas G. Long, *Beyond Worship Wars: Building Vital and Faithful Worship* (Littlefield: Alban Institute, 2001).

한다.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대립 가운데에서 일선 교회의 목회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보다는 ‘불완전한 절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예배당의 한쪽에는 오르간과 피아노를 놓으면서 다른 한쪽에는 키보드와 드럼을 놓는 것이다. 가운 입은 성가대와 평상복을 입은 찬양팀을 함께 예배에 서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완전한 조화는 목회자들이 예배의 본질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배의 원칙과 목회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초래된다.

그렇다면,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예배는 이 두 형태의 예배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이 문제는 지금도 매 주일 교회현장에서 목회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직접적인 도전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예배의 정체성과 유래 및 역사에 대하여 치밀하게 따져보고, 이것들이 과연 예배의 제정자이신 예수께서 명하신 예배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결교회뿐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의 예배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 1.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원하셨던 것

열두 사도를 비롯한 최초의 교회공동체는 예배를 스스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명령받았다. 이 명령 속에는 예배의 정신뿐 만 아니라 예배의 구조와 형식도 포함되어 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루어졌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마칠 때에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sup>2)</sup>

제자들이 예수를 기억할 만한 사건이나 사고는 많았다. 38년 된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신 일이나, 나면서부터 앓은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예수께서 당신을 기억할 만한 수많은 ‘큰 사건’들을 다 제쳐두고 왜 하필 ‘떡을 떼는 일’과 함께 당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해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 찢고 피 흘려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것을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떼어지는 빵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는 당신의 몸을, 부어지는 포도주는 당신의 몸에서 흘러게 될 피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당일에 행해졌다고 공관복음서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sup>3)</sup>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당시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죽임당한 어린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어린양을 도살하는 그 시각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빵을 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신의 대속적 희생을 통한 인류구원이라는 복음의 요체(要諦)가 ‘떡 의식’(bread-rite)과 ‘잔 의식’(cup-rite)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2) 고전 11:23-25.

3) 마 26:17-30; 막 14:12-26; 눅 22:7-20.

예수께서는 공생애 마지막 날 저녁 식탁에서 성만찬의식을 제정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재구성된 신약시대 예배의 형식

그렇다면,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직접 들은 열두 제자들은 스승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명령을 어떻게 이행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약성서는 예배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남기고 있지 않다. 다만 고린도교회가 모였을 때에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기록(고전 14장)이나,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떡을 떼었다는 이야기(행 2장, 20장),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행 2장) 등 여러 곳에 흩어진 단편적인 기록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신약 공동체의 예배에 관한 진술이라고 추측되는 부분은 사도행전에 언급된 ‘떡 떼기’(breaking bread)에 관한 기록이다.<sup>4)</sup>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으며”(행 2:42),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행 2:46), 드로아의 교회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식탁을 나누었다’(행 20:7-)는 기록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열 두 사도들을 중심한 신약의 교회가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충실히 지켰음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의 기록은 당시 예배의

---

4) Cheslyn Jones, Geoffrey Wainwright, Edward Yarnold SJ and Paul Bradshaw, *The Study of Liturgy* (London: SPC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98-199.

구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이 본문에는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강론'과 '떡 떼'를 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나타나는 예배의 구조가 신약 이후의 시대에 작성된 여러 문헌들에 기록된 예배의 구조와 일치되기 때문이다.

신약성경보다 60여 년 후에 기록된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의 『첫 번째 변증문』(First Apology, 165 AD)은 당시 로마지역에서 행해지던 예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문헌으로서 이러한 예배의 구조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한 장소에서 도시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사도들의 언행록이나 예언자들의 글이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낭독됩니다. 낭독자의 낭독이 끝나면 그 집회의 인도자는 강론을 통하여 이러한 고귀한 일들을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모두 함께 일어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떡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고 인도자는 마찬가지로 힘있게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회중은 아멘으로써 화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별된 떡과 포도주와 물이 각자에게 분배되고 부제들은 결석자들에게 그것을 가져다줍니다.<sup>5)</sup>

이 문헌에 의하면 주후 2세기 중반 로마지역의 교회에서 거행된 주일 낮 예배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었다.

### 1. 성경봉독

---

5) Justin Martyr, *I Apology*, 67. in Cyril C. Richardson,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70), 287.

2. 설교
3. 기도
4. (떡과 포도주의) 봉헌
5. (성찬 감사) 기도
6. 성찬참여.

이 여섯 가지의 순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부분은 ‘성경봉독-설교-기도’이고, 둘째 부분은 ‘봉헌-성찬기도-성찬참여’이다. 앞의 세 요소는 성경봉독과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예전’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뒤의 세 요소는 성찬기도와 성찬참여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찬예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기록된 예배의 구조는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기록된 ‘강론’과 떡 떼임’이라는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본래 예배는 속성상 쉽게 변하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을 가지고 역으로 1세기 후반 또는 그 이전 최초의 사도들이 행했던 예배의 형식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행했던 1세기 주일예배(행 20:7)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인 사람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좌장 격인 사도(혹은 사도 바울)가 일어나서 자신이 겪은 예수의 이야기, 즉 생전의 예수와 함께 다니며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생전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이야기,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셨던 이야기 등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또한 예수께서 생전에 하셨던 가르침들을 기억해 내어 회중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약해지지 말고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자”고 권면하였을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 수십

년 동안은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므로 이처럼 기억을 떠올리거나 구전(口傳)하는 내용을 말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서나 고린도서 등의 서신서들이 기록되면서부터는 그 편지들을 회중이 모인 가운데 봉사자(deacon)가 읽고 좌장이 거기에 해석과 권면을 더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강론이 끝나면 모두 일어서서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가 끝난 후에는 맑은 이가 빵과 포도주와 물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좌장에게 건네주고, 좌장은 그것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모두가 그것을 함께 먹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는 이 ‘떡 뱀’ 의식은 당시 모임이 저녁에 행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녁식사를 겸한 것이었지만, 그 정신과 목적은 앞서 언급했듯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신 예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흘리신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 3. 초대교회 예배의 구조에 들어있는 예배신학

예배의 형식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명제 하에 예배의 구조나 형식을 바꾸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존 예배의 구조와 형식 속에 들어 있는 예배의 신학, 즉 예배의 본질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기존의 예배에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예배의 변형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2천 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예배의 개혁이나 변화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백 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루어졌으며, 거기에는 많은 신학적 토론과 심도 깊은 연구가 수반되었다.<sup>6)</sup>

6) 필자가 보기에 작금 한국 땅에서 진행되는 급진적이고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예배의 변화들은 대부분 목회자 또는 교회 관계자들의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 주체들은 예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로 인해 생성되는 새로운 예배들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부실하거나 잘못된

그런 차원에서 작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논쟁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일차적으로 초대교회 예배의 구조와 형식에 들어 있는 예배신학, 즉 예배의 본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예배에서 성경봉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교자 저스틴의 『첫 번째 변증문』은 성경봉독이라고 하지 않고 ‘예언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언행록’을 읽었다고 기록한다.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 않았고 ‘누구에 의한 복음’ 또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름의 두루마리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회람되던 시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언행록’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구약성경 역시 ‘예언자들의 글’이라는 말로 통칭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예배에서 ‘구약’과 ‘신약’을 읽은 이유는 무엇일까? 구약을 읽은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신약을 읽은 이유는, 그것이 지상의 예수를 따라 다니면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사와 이적,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이기 때문이었다. 복음서를 별도로 읽은 이유는 그것이 메시아 자신의 ‘직접말씀’과 행적을 담은 책이기 때문이었다.<sup>7)</sup>

순교자 저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구약과 신약의 봉독은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sup>8)</sup> 이 표현으로 미루어보아 당시의

---

영성으로 이끌 위험성이 큰 것들이다. 이러한 예배개혁은 사람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받을수록 그 폐해가 커지게 된다.

7) 동방정교회나 가톨릭교회 등에서는 지금까지도 신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복음서만을 별도의 책으로 묶어서 소중하게 다루며, 복음서는 금박으로 표지를 장식하거나 또는 예배시간에 복음서를 들고 행렬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8) Justin Martyr, *I Apology*, 67 in Cyril C. Richardson, *Early Christian*

성경봉독은 꽤 긴 시간 동안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봉독의 이유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성경봉독 그 자체가 예배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에서 성경봉독은 설교를 위한 하나의 보조분서로 밀려나 버렸다. 한국교회에서 성경봉독은 설교를 위한 하나의 증거본문(Proof Text)의 구실을 할 뿐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심지어는 찬송설교, 드라마설교 등 아예 성경봉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러나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처럼 성경봉독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예배의 구속사적 차원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성경이 읽혀진 뒤에는 설교가 행해졌다. 설교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러한 고귀한 일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다.<sup>9)</sup> 이 기록은 성경봉독과 설교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 설교는 어디까지나 봉독된 성경에 대한 해석과 권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봉독된 성경과 다른 내용을 설교하거나 또는 설교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라고 할 수 없다. 설교의 본 취지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야기, 즉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행위를 선포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사실 '독서와 강론'이 중심이 되는 예배형식은 유대교의 회당예배로부터 기독교로 도입된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님 당시, 즉 서기 1세기 회당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다. 그때에 읽으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athers*, 287.

9) Ibid.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sup>10)</sup>

이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 읽은 부분에 대한 ‘해석과 권면’, 즉 설교를 하셨는데 그 장면을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sup>11)</sup>

그렇다면, 회당에서 행해지던 유대교 예배에서도 구약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서도 구약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유대교의 예배와 기독교의 예배는 동일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유대교인들의 예배에서는 구약성경을 읽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설교하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서는 동일한 본문을 읽은 후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이미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이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하고 설교한 것이다. 이는 현대에도 동일하다. 지금도 유대교의 회당예배에서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

10) 사 61:1-2.

11) 눅 4:20-22.

설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예배에서는 신약을 함께 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라고 선포한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초대교회가 구약성경을 읽은 이유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고, 신약성경을 읽은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옆에서 따라다닌 사도들이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증언한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모두 읽어야 예배의 구속사적 차원이 확보된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는 행위 자체가 바로 예배의 구속사적 차원을 표현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형식은 기독교의 태동시기부터 확립된 전통이었다.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하게 된 4세기 이후의 문헌들은 당시 교회들이 예배에서 구약 한 곳과 신약 두 곳 즉 사도서신과 복음서 이렇게 세 개의 성경봉독을 하였다고 증언한다.<sup>12)</sup> 따라서, 성경봉독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예배의 요소였으며, 그 중요성은 설교와 동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순교자 저스틴의 편지에 따르면 당시 예배에서는 강론을 마친 후에 모두 일어나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다.<sup>13)</sup> 예배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때에 하는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인다.<sup>14)</sup>

12) Cheslyn Jones, Geoffrey Wainwright, Edward Yarnold S. J. and Paul Bradshaw, 226.

13) Justin Martyr, *I Apology*, 67. in Cyril C. Richardson, *Early Christian Fathers*, 287.

2세기 교회의 예배에서 행해지던 성만찬 예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빵과 포도주를 앞으로 가져와 바치는 순서이고, 둘째는 집례자가 그것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바치는 순서이며, 셋째는 모두 그것을 받아먹는 순서이다.

우선, 빵과 포도주를 앞으로 가져와 바치는 봉헌의 행위는 창조 신학과 결합되어 있다.<sup>15)</sup> 즉, 봉헌자의 손에 들려진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 자라게 하신 밀(wheat)에다가, 그것을 경작하기 위해 땀을 흘린 인간의 수고와 노동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결실이다. 빵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의 일부로서 피조세계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목사가 두 손에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바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다. 교부 이레니우스(Irenaeus)는 ‘피조물인 빵’과 ‘피조물인 잔’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창조와 구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sup>16)</sup> 빵과 포도주는 또한 새 창조를 상징한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드리는 예배 곧 성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원창조물로서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육체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지만, 사제가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그 빵과 포도주가

---

14) 한국교회에서 설교순서보다 훨씬 앞에 예배의 초입부분에서 이런저런 간구사항을 말씀드리는 예배순서와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5) 성만찬의 창조주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alph N. McMichael, JR. *Creation and Liturgy* (Washington, DC: The Pastoral Press, 1993), 13-29.

16) *Against Heresies*, V. 2.2. in *Anti-Nicene Fathers*, Vol. I. The Writings of the Fathers down to 325 A.D.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528.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sup>17)</sup>

성만찬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 전체를 포괄한다.<sup>18)</sup> 즉 예배공동체는 성만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이라는 구속사 전체를 언급하며 감사를 드린다.

이때에 집례자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네 가지 동작을 그대로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빵을 집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 ‘주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동작은 한 덩어리의 빵으로부터 나누어 먹기 위한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 안에 깊은 신학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먼저, 떡을 집는 동작은 통상적으로 떡을 성찬상으로부터 집어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리우신 것을 상징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동작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복음의 극적인 선포’(dramatic proclamation of the Gospel)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19)</sup>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빵을 두 조각으로 쪼개는 것은 예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긴 것을 상징하며, 쪼개진 빵을 성반 위에 놓는 것은 돌아가신 예수의 몸이 무덤에 누이시는 것을 상징한다. 물론 포도주의 붉은 색깔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17) David Power, *Eucharistic Mystery: Revitalizing the Tradition* (New York: Crossroad, 1994), 95.

18) Paul Bradshaw,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Liturgy & Worship* (Louisville and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92-199.

19) "An Order of Mass and Communion for the Church at Wittenberg," in *Luther's Work*, Vol. 53. 26-30.

피를 상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성만찬은 나사렛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되는 예수 생애의 예루살렘적 국면을 지금 여기에서 요약하고 재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신구약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갈릴리에서부터 두루 다니시며 말씀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의 사역을 지금 여기에서 재현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성만찬을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살 찢고 피 흘려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역을 지금 여기에서 재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 구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역사가 모두 들어 있으며, 예배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지상의 예수와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오늘의 예배자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때'에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게 하신다.

#### 4. 기독교 공인 시대에 꽃핀 예배의 구조와 형식

2세기 문헌인 순교자 저스틴의 편지에서 보았듯이, 3세기까지의 예배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형식을 띠었던 반면에, 기독교가 공인된 4세기부터 예배는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 지금까지 카타콤이나 가정집 등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예배는 이제 공공연하게 땅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바실리카 법정 건물을 본 단 예배당 건물에서,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의 옷을 본 단 예복을 입은 주교와 사제들에 의해 거행되게 되었다. 예배형식도 마찬가지로였다. 예전에는 꼭 필요한 필수요소들을 중심으로 지극히 간단한 예배가 행해졌다면 이제는 잘 발달되어 보다 격식을 갖춘 예배형식을 갖게 되었다. 입례송이나 자비송(Kyrie), 영광송(Gloria), 그날의 기도(Collect),

성경봉독 사이사이에 불리는 시편송과 알렐루야송 등이 추가되었다.

전체적으로 예배순서가 더 길어지고 확대되었지만 ‘말씀’과 ‘성만찬’이라는 신약의 예배구조와 차이가 없으며, 새로 생성된 순서들은 모두 기존 예배요소들 사이의 여백을 메꾸고 예배를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보완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sup>20)</sup>

## 5. 종교개혁자들과 예배의 변화

중세 서방교회의 예배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회중들의 능동적 참여가 현저하게 사라졌으며, 성만찬은 초대교회에는 없었던 많은 의식들과 상징들로 덧씌워진 요란한 볼거리로 변했고, 성찬의 떡은 축성되고 높이 들어올려져서 경배되었지만 회중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미사는 갈보리에서 예수께서 바치신 자기봉헌에 참가되는 또 다른 희생제사로 인식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심각한 미신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세교회들을 보았는데, 그 기괴하고 몽상적인 미신들은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으며, 모두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고 그레고리 디스(Dom Gregory Dix)는 정확히 지적하였다.<sup>21)</sup>

20) 4-6세기에는 지중해 주변의 주요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예배전통들이 형성되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알렉산드리아 전통(성 마가의 리터지), 예루살렘과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서시리아 전통(성 야고보의 리터지)과, 비잔틴 전통(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리터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전통(로마의식). 이 전통들 모두 큰 틀에서 ‘말씀예전’과 ‘성찬예전’이라는 동일한 구조와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 공통점과 비교해 볼 때에 지극히 미미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21) Dom Gregory Dix, *The Shape of the Liturgy* (London: Dacre Press, 1978), 627.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예배의 전통은 크게 네 가지인데, 곧 루터교, 성공회, 개혁교회, 재세례파이다. 이것들은 모두 오늘날 세계적인 예배전통이 되었다. 먼저, 루터가 예배에 끼친 공헌은 지대하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꿈꾸었던 초대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설교를 회복하여 말씀과 성찬의 균형을 이루었고,<sup>22)</sup> 회중찬송을 도입하였으며,<sup>23)</sup> 회중들에게 성만찬을 회복시켜 주었다.<sup>24)</sup> 또한 자국어예배를 통하여 회중의 예배참여를 제고하였다.

한편 루터가 예배에 가져온 부정적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첫째, 성만찬기도를 삭제하고 주님의 제정사만을 남겨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의 루터답지 않게 급진적이고 비논리적이며 파괴적인 처사였다고 지적한다.<sup>25)</sup> 한국교회에 전해진 성만찬 거행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둘째, 예배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시간으로 전락시켰다. 루터교 예배학자 브릴리오쓰(Yngve Brilioth)는, 루터가 예배의 가치를 신자들을 교육함에 두고 신앙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비판한다.<sup>26)</sup>

22) Luther D. Reed, *The Lutheran Liturgy: A Study of the Common Service of the Lutheran Church in America* (Philadelphia: Mulhenberg Press, 1947), 78.

23) William D. Maxwell,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An Outline of Its Development and For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2), 80.

24)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 Selected and Introduced by Bard Thomps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1), 104.

25) Luther D. Reed, 79; William D. Maxwell, 77.

26) Yngve Brilioth, *Eucharistic Faith & Practice Evangelical & Catholic*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New York: The MacMillan Co.1939), 122.

전체적으로 루터의 예배는 중세가톨릭의 예배와 큰 차이가 없다. 감리교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가 중세 가톨릭교회를 향한 루터의 싸움을 ‘연인간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듯이,<sup>27)</sup> 루터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유산에 대한 존중심이 있었고, 예배에 관해서도 성경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것들이 신앙에 유익하다고 보아 존치시키는 쪽을 택하였다. 그의 미사형식서(Formula Missae)에 나타난 예배형식은 다음과 같다.

입례송, 자비송, 영광송, 그날의 기도, 서신서, 증계송, 복음서와 그 의식들, 니케아신조, 설교.<sup>28)</sup> 여기까지 진행되는 말씀예전은 기존의 중세미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만찬예전은, 먼저 수르썬 코르다(Sursum Corda), 간단한 예비기도, 제정사(Institution Narrative), 성가대의 상투스(상투스)와 사가랴의 찬미(Benedictus), “복음의 극적인 선포”(dramatic proclamation) 즉 언약의 인증과 표징인 거양성체(elevation), ‘주의 기도,’ ‘평화’(the Pax),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어린양’(Agnus Dei)을 찬양하는 동안에 행해지는 수찬과 아론의 강복기도로 끝을 맺었다.<sup>29)</sup>

오늘날 장로교회의 전신인 개혁교회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츠빙글리(Ulrich Zwingli)가 가져온 예배의 변화는 가장 급진적이고 치명적이다. 예배의 본문과 의식을 극도로 단순화시켰음은 물론 예복, 교회력, 교회음악을 모두 폐지시켰다. 성가대의 해산, 교회 오르간과 스테인드글라스의 파괴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성만찬에 대한 그의 신학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 6장)는 말씀에

27)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37.

28) Ibid., 22-25.

29) Ibid., 26-30.

근거한다. 음식을 통하여 신앙이 주어진다는 생각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었으므로, 떡과 포도주는 은총의 수단이 아니라 은총을 회상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하나의 생생한 영적 훈련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는 명상의 시간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sup>30)</sup> 이것이 츠빙글리가 주창한 ‘기념설’이다.

츠빙글리에 의해 취리히 시에서는 예배에서 일체의 상징이 제거되고, 고도로 ‘구어’(口語) 중심적 예배가 되었으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경배행위라기보다는 회중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훈적(didactic)이고,<sup>31)</sup> 윤리적인 행위로 전락되었다.<sup>32)</sup> 결과적으로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라기보다는 인간을 향한 행위가 되고 말았다. 한국교회의 예배는 많은 부분 츠빙글리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츠빙글리에 대한 평가는 두 갈래로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끔찍하고 섬뜩하다’고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명료하다’고 한다.<sup>33)</sup>

츠빙글리가 1525년 부활주일에 취리히 시의회에 제출한 “주의 만찬의 활용”(Action or Use of the Lord's Supper)에 나타난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 예비기도 — 기도와 중보 — 설교 — 죄의 고백 — 용서의 기도 — 성물준비 — 그날의 기도 — 서신서(고전 11:20-29) — 영광송(교창 형식) — 복음서(요 6:47-63) — 사도신경(교창 형식) — 권면 — 주의 기도 — 수찬준비기도 — 제정사 — 간단한 감사기도 —

30) Bard Thompson, 143.

31) William D. Maxwell,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An Outline of Its Development and For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2), 81.

32)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61.

33) Ibid., 62.

해산.<sup>34)</sup>

또 한 명의 개혁교회(장로교회)의 선구자 마틴 부처(Martin Bucer) 역시 개신교 예배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는 1525년부터 스트라스부르에서 개혁운동을 진두지휘하였다. ‘미사’(the Mass)를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으로, ‘사제’(priest)를 ‘목사’(pastor) 혹은 ‘사역자’(minister)로 바꾼 것, 예복을 검정색 가운데로 바꾼 것 등이 모두 부처의 작품이다. 성경봉독을 세 개 읽지 않고 하나만 읽는 것, 기존에 성구집(lectionary)을 따라 읽던 방식을 폐지하고 주일마다 ‘연속일기’(lectio continua) 방식으로 읽는 것, 예배의 시작 부분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 역시 부처의 유산이다.<sup>35)</sup>

종합적으로 보면, 개혁자들로 말미암아 예배는 중세 미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말씀의 회복, 회중참여의 제고, 회중찬송과 자국어예배 등 긍정적 결과를 얻었지만, 츠빙글리 같은 급진주의자들로 말미암아 ‘말씀-성찬의 균형’이 파괴되고, 상징, 색깔, 예복, 음악, 등이 예배에서 배제되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행위가 아니라 신자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행위로 전락되었으며, 이러 인해 ‘공동의 행위’로서의 예배 즉 객관성이 증시되는 예배를, 교제와 기도와 권면 그리고 교훈 등으로 이루어진 ‘주관적 예배’로 변화되었다.

## 6. 19세기 미국에서 출현한 신종(新種) 예배형식

19세기 북미대륙에서는 획기적인 예배의 변화가 일어났다. 광활한 대륙에 흩어져 교회도 목사도 없이 살아가던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을 회심시키기 위한 대규모 천막집회(Camp Meeting)가

34) Ibid., 187-188.

35) Ibid., 204.

새로운 예배의 산실이었다. 당시의 천막집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1부는 한 시간씩 계속되는 열정적인 찬송, 2부는 '구원이나 멸망이냐'의 2분법 도식으로 회심을 촉구하는 강력한 복음전도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초청의 순서가 바로 그것이었다.<sup>36)</sup>

천막집회는 기독교 1,800년 역사상 가장 새로운 형태의 예배형식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소위 '찬송 샌드위치' (Hymn Sandwich)라고 하는 예배형식으로서, 찬송, 기도, 성경봉독, 설교 등을 적당히 배열한 것인데, 특징은 순서 중간 중간에 찬송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설교가 예배의 맨 후반에 위치하고, 설교 후에는 초청(Altar Calling)으로 예배를 끝맺는 것이었다. 성경봉독과 설교의 사이에 광고, 헌금, 찬송 등 많은 순서들이 삽입되는데, 그 이유는 설교 후에 곧바로 초청을 하고 예배를 끝맺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설교 앞에 오는 순서들은 모두 설교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순서 정도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예배형식의 밑바탕에는, 예배는 오로지 '복음제시'와 '회심의 촉구'를 위한 수단이며 방편이라는 개념이 자리해 있다. 따라서 좋은 예배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그 예배에서 얼마나 많은 회심자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이었다.<sup>37)</sup>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교육'으로 대치했다면, 19세기 북미의 프린티어 예배는 '예배'를 '전도'로 대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위 '뜨거운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었다. 설교자는 참여자들을 회심시키거나 재현신시키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어야 했고, 따라서 열정적이며 감정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들에게

36) Ibid., 177.

37) Ibid.

있어서 회중의 '영적 온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아쉽게도 이러한 예배에서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예배의 공동체적 성격이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경배행위 같은 예배학적 개념은 설 자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 7. 성결교회 예배의 기원과 예배갱신의 과정

1905년에 출판된 감리교 찬송가에 나타난 “공예배순서”(Order of Public Worship)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찬송, 사도신경, 기도, 주님의 기도, 찬송, 구약봉독, 영광송, 신약봉독, 광고, 헌금, 찬송, 설교, 초청.<sup>38)</sup> 이 예배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형식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닮은꼴이라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예배가 19세기 북미의 선교사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예배와 전도의 결합, 회심자를 많이 만들어내면 좋은 예배라는 실용주의적 발상, 신자 개개인의 영적 온도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 예배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예배진행 등은 19세기 북미 개척자예배의 특징이었으며, 이는 선교사들을 통해 고스란히 한국에 전해졌다.

개척자예배의 유산은 한국 땅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과 새벽기도 운동을 통하여 ‘뜨거운 신앙’, ‘뜨거운 기도’, ‘뜨거운 예배’를 더욱 꽃피우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토양에서 출발한 성결교회가 ‘뜨거운 예배’를 선호하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주일 저녁에 행해졌던 ‘구령회’와, 기존 신자들을 위해 주일 오후에 은사집회로 열렸던 ‘성별회’ 등은 성결교회 예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예배들

38) Ibid.

은 찬양, 간증, 설교, 간절한 기도 등을 적절하게 조합한 형식으로 구성되었지만, 그 핵심은 열정적인 찬송과 강력한 복음전도 설교 그리고 뜨거운 기도였다. 초기성결교회의 이름이었던 ‘복음전도관’은 성결교회 예배의 특징을 표현하는 적절한 이름이었다.

1936년에 출판된 성결교회 헌법은 예배의 순서가 묵도, 성가, 사도신경, 기도, 성경낭독, 성가와 헌금, 특별성가, 설교, 기도, 송가, 축도 등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다. 1945년 재흥총회에서 통과된 헌법은 여기에 주의 기도, 시편교독, 헌금에 대한 감사기도, ‘은혜좌’ 등의 순서를 첨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배순서들은 정확히 19세기 서부개척자 시대에 생성된 ‘찬송 샌드위치’ 예배형태를 반영한다.

성결교회의 예배에 갱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9년에 최초로 제작된 ‘예식서’는 교회력과 예전색깔에 대한 지면을 앞부분에 게재함으로써 예전적 예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였으나, 주일낮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를 게재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출판된 1991년판 ‘예식서’는 기존의 교회력과 예전색깔 외에 성서일과와 부활주일 일람표 등을 보완하였고, 주일낮공예배 순서를 개회예배—말씀예배—성만찬예배의 3부 구조로 제시하면서 “이는 세계 교회들의 통용되는 공통적 예배형태”라고 하였으며, 성만찬 예전에 있어서도 “매주일 행하는 것이 성서적인 원칙”이며, A형과 B형 가운데 B형은 “배찬 위원 없이 회중이 목사 앞에 나와 받게 하는 세계교회들의 통용되는 방법”이라고 소개함으로써 함으로써 세계 교회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1991년판 예식서가 에큐메니칼적인 예배를 지향했다면, 1996년판 ‘새예식서’는 초기 선교사들에 의하여 소개된 ‘노방예배순서’인 주일낮공예배(A형태)와 ‘성서 안에 나타난 초대 기독교 예배의 기본 요소들로 짜여진’ 주일낮공예배(B형태)를 나란히 소개함으로써, 초기 성결교회의 유산과 세계교회들의 예배회복이라는 흐름을 함께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로 개정된 2004년판 ‘예배와 예식서’는 기존에 있던 2개의 주일낮예배에 성서적이고 초대교회적인 형식과 구조를 지닌 4개의 주일예배순서를 첨가하고, 초대교회적인 형식과 집례방법으로 이루어진 성만찬예전을 도입함으로써 ‘예전갱신운동’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4년판 ‘예배와 예식서’는 그 안에 담긴 예배와 예식들의 신학과 의식(ritual)에 있어서 세계 교회들의 예배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예배서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초대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려는 정신 하에 성만찬예전이 포함된 네 개의 주일낮예배 형식과, 풍부한 응답송을 포함한 성만찬예전, 그리고 도합 열일곱 개의 성만찬예전문에 있다. 아울러, 세례예전에 있어서도 초대교회의 용례에 따라 ‘홍수기도’<sup>39)</sup>를 회복하고 유아세례예전이 회복되었다.

2015년에 개정될 새 예배서는 보다 더 초기 성결교회의 유산을 뚜렷이 하는 동시에 세계 교회들의 예배흐름에 발맞추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개정판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기 성결교회의 유산인 ‘신유예식’과 ‘성별회’(聖別會) 형식을 추가하였으며, 1784년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감리교도들에게 주었던 주일낮예배 예식문을 원문으로부터 번역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성만찬예배(주일예배 제5형식) 때에 부르는 찬송을 요한웨슬레의 찬송집에서 선곡하여 삽입하며, 세례예식을 포함한 각종 예식에 사중복음(중생, 성결,

---

39) 창조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성경의 사례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을 인한 축복기도’(Prayer over the Water)로서,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에 의해 제거되었다가 현대 예배갱신운동(Liturgical Movement)에 의하여 주요 개신교회들의 세례예전에서 다시 회복된 기도이다.

신유, 재림)적 요소를 도입한다.

둘째, 초대교회의 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의 주일낮 예배 형식 중에서 세 개를 초대교회의 예배형식으로 제공하고, 다섯 개의 성만찬예전 형식 중에서 네 개를 초대교회의 방식으로 집전하도록 한다. 아울러, 초대교회에서 했던 방식을 따라 ‘세례예비자 예전’과 ‘세례후보자 등록예전’을 제공하고, 성도 개인 혹은 공동체 전체가 세례 때에 했던 서약과 헌신을 갱신할 수 있도록 돕는 ‘세례갱신예전’을 제공한다.

셋째, 예배신학의 강화를 위하여 주일낮예배, 성만찬예전, 교회 입문예전을 포함한 안수예식, 건물관련예식, 가정의례예식, 생일관련예식, 혼인과 장례관련예식 등 모든 예식 항목에 대한 ‘신학적이해’와 ‘집례를 위한 지침’ 등을 제공한다.

## 8. 성결교회 예배의 나아갈 길

폰 알멘(J. J. Von Allmen)은 예배표현의 규범을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성서적 충실성, 전통에 대한 존중,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라는 요소이다.<sup>40)</sup> 교파를 초월하여 예배는 이 네 가지의 범주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에 비추어 볼 때에, 소위 ‘현대예배’의 형식과 구조가 지닌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19세기 미국에서 유래하였으며 한국에 전래되어 소위 ‘전통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예배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첫째, 설교가 예배의 맨 뒷부분에 위치하여 그 앞에 오는 모든

40) J. J. Von Allmen, 『예배학 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94-99;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77-180.

순서들을 설교를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introductory course)으로 전락시킴으로써, 회중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전락시키고, 아울러 예배의 방향과 지향을 하나님이 아닌 회중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회중을 교화하는 시간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sup>41)</sup>

둘째, 예배에서 한 곳만 읽혀지는 성경봉독은 신약과 구약을 봉독하는 예배형식 자체에 내포된 예배의 구속사적 차원을 상실하는 것이다. 한 곳만 읽혀지는 성경본문은 설교를 위한 ‘근거 본문’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그나마 본문에 대한 충실한 주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설교라는 이름으로 말한다면 이는 예배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설교자로 하여금 자기과시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sup>42)</sup>

셋째, 성만찬이 예배에서 배제되는 것은 예배의 그리스도 중심성과 구속사적 차원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개혁자 칼빈은 당시에 1년에 한 번 성찬식을 거행하는 관습을 가리켜 “틀림없는 마귀의 발명품”이라고 비난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는 적어도 매주 한 번씩은 성찬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3)</sup> 요한 웨슬리도 ‘부단한 성만찬 참여의 의무’(The Duty of Constant Communion)를 강조하며,<sup>44)</sup> “이것을 행하라”는 예수님

41) 그 외에 회중 대표가 설교 전에 하는 예배기도나 예배 순서의 비논리성 등도 언급되어야 하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42)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184.

43) John T. McNeill,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V. Ch. VI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1424.

44) Cheslyn Jones, Geoffrey Wainwright, Edward Yarnold S. J. and Paul Bradshaw, 325.

의 말씀은 가능한 한 자주 성만찬을 거행하라는 뜻이기에, 자신은 평생 동안 평균 4일 내지 5일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하였다.<sup>45)</sup> 그러므로 성결교회 예배에서 성만찬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넷째, 예배의 구조와 형식 안에 내재된 구속사적 내러티브가 결여되어 있고, 다분히 감성적 접근방법에 의존하며, 본질적으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회중의 신앙강화를 위한 ‘부흥집회’ 또는 ‘전도집회’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성육신’의 종교이며, 창조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포괄하는 구원사, 즉 역사성을 지닌 종교이다. 이 구원의 역사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과 승천, 재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포함하는 역사이다. 성결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예배에는 이러한 성육신적 특성과 구원사가 표현되어야 한다.

## 나오는 말

예배는 단지 복음을 선포하고 결신자를 이끌어내는 행위만이 아니며,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만도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서 절정을 이루는 구원사의 총체를 지금 여기에서 기억하고 재현하고 선포함으로써 성령께서 예배자들에게 이 모든 구원사의 은총을 힘입혀 주시는 신학적 행위이다.

---

45) John C. Bowmer,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in Early Methodism,” 55. Quoted in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155.

성만찬은 예수께서 직접 명하신 예배의 규범이며, 최초의 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명령을 충실히 지켜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렸다. 교회가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행위는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외에 다른 아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선포이다.

현대예배냐 전통예배냐를 따지기 전에 성결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는 먼저 이러한 예배의 본질과 신학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성서적 구속사적 충실함이 있는 예배, 통전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예배,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llmen, J. J. Von. 『예배학 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Bradshaw, Paul.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Liturgy & Worship*. Louisville and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Brilioth, Yngve. *Eucharistic Faith & Practice Evangelical & Catholic*.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New York: The MacMillan Co. 1939.
- Davis, Horton. *The Bread of Life and Cup of Joy: Newer Ecumenical Perspectives on the Eucharis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3.
- Dix, Dom Gregory. *The Shape of the Liturgy*. London: Dacre Press, 1978.
- Dix, Gregory and Henry Chadwick. *The Treaties on the Apostolic Tradition of St. Hippolytus of Rome*. Ridgefield, Connecticut: Morehouse Publishing, 1992.
- Jasper, R. C. D. and G. J. Cuming. *Prayers of the Eucharist: Early and Reformed*.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87.
- Justin Martyr. *I Apology, 67*. in Cyril C. Richardson,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70.
- Jones, Cheslyn, Geoffrey Wainwright, Edward Yarnold SJ and Paul Bradshaw. *The Study of Liturgy*. London: SPC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Long, Thomas G. *Beyond Worship Wars: Building Vital and Faithful Worship*. Alban Institute, 2001.
- McMichael, JR. Ralph N. *Creation and Liturgy*. Washington, DC: The Pastoral Press, 1993.

- Maxwell, William D.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An Outline of Its Development and For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2.
- McNeill, John T.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V.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Power, David. *Eucharistic Mystery: Revitalizing the Tradition*. New York: Crossroad, 1994.
- Reed, Luther D. *The Lutheran Liturgy: A Study of the Common Service of the Lutheran Church in America*. Philadelphia: Mulhenberg Press, 1947.
- Thompson, Ba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 Selected and Introduced by Bard Thomps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1.
- White, James F.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 “An Order of Mass and Communion for the Church at Wittenberg,” in *Luther’s Work*, Vol. 53.
- Anti-Nicene Fathers*, Vol. I. *The Writings of the Fathers down to 325 A. D.*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Abstract*

Retrospect and Prospect on the Worship of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from a Perspective of  
Liturgical History

Cho, Kee Ye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Churches of the Korea are under the ‘Worship War’ since so-called Contemporary Worship has arrived in the last decade of 1900. Contemporary worship, represented by ‘Seeker’s Service’ and ‘Praise & Worship’ eliminates traditional Christian symbols such as Cross, Pulpit, Lord’s Table, and Pastor’s Robe. It uses contemporary instruments such as keyboards and drums rather than traditional Church instruments such as organs or pianos. Worship has simple structure with several songs which proceeds to sermon directly. Young people are excited about contemporary worship because it has strong sounds and ‘big bright screen.’

Pastors in ministry field are so frustrated by the young generation’s fever about contemporary that they are taking a dubious attitude in between traditional worship and contemporary worship. For instance, they place organ in one side and drum in the other side of the altar. They put choir with robe in one side and worship team in the other side. The intensity of the

struggle in between traditional worship and contemporary worship is well expressed in the term ‘Worship War’ by the famous liturgical scholar Thomas Long. This phenomenon is ongoing in Korean Churches.

If we want to discern that whether it is a mere either/or issue between traditional worship and contemporary worship or it is a right or wrong issue of Christian worship, we have to understand clearly the biblical concept of worship, theology of worship, and the spirit of worship that Church has kept past two thousand years. On this base of understanding our denominations and Churches can apply our own characteristics and traditions to our worship. This paper is about the origin, apostolic practice, history and the original meaning of Christian worship to get some insight for the future direction of worship in Korean Churches.

*Key Words*

예배, 예배신학, 성만찬, 전통예배, 현대예배  
Worship, Theology of Worship, Eucharist,  
Traditional Worship, Contemporary Worship

\* 논문투고일 2015. 4. 21. 심사완료일 2015. 4. 27. 게재확정일 2015. 5. 10.